

# “경찰차 보면 도망쳤는데…대한민국 국민임을 잊지 않겠다”



본보 2025 캠페인 ‘아름다운 사회 함께 만들어요’

광주출입국·사무소, 고려인마을서 특별귀화자 위문  
‘그날의 마음으로, 오늘을 함께 살다’ 주제로 진행  
홍범도 홍상 현화·목념…독립운동가 희생·헌신 기려

“불법체류자로 살던 10년 동안 경찰차만 봐도 도망쳤는데… 할아버지 덕에 된 대한민국 국민임을 잊지 않고 국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지난 27일 연 ‘기억과 나눔의 자리’ 행사에 초청된 특별귀화자 최순애씨는 이 같은 소감을 밝혔다.

이날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보훈의 달을 맞아 광주 고려인마을에서 ‘그날의 마음으로, 오늘을 함께 살다’를 주제로 특별귀화자 위문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김강목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비롯해 광주출입국사회통합위원, 이영순 나눔하나행복들 이사장, 윤영석 나주대학교 부총장,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초청된 특별귀화자는 독립유공자 최병직 선생의 손녀 최순애(64)씨와 박노순 선생의 외손녀와 고손자인 박림마(68)씨, 우가이에고르(11)군 등 3명이다.

이 자리에서 특별귀화자들은 절절한 가족사를 전했다.

중국에서 태어난 최순애씨의 할아버지는 대한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27일 광주 고려인마을에서 ‘기억과 나눔의 자리’ 행사를 열어 특별귀화자 3명(오른쪽부터 최순애·우가이에고르·박림마씨)을 위문했다.

의군부에서 활동하다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그의 가족은 일제강점기 때 만주로 이주하며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 최씨의 경우 1990년대 한국으로 건너와 식당 등을 전전하며 살아왔다.

그렇지만 비자를 연장받지 못해 최씨는 10년 동안 불법체류자로 살다가 2016년 특별귀화를

통해 구제됐다.

최씨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한 할아버지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고 대한민국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특별귀화한 박림마씨와 그의 손

자 우가이에고르 군도 조국과 조상에 감사를 표현했다.

1919-1922년 연해주 다반부대 소속으로 항일 무장투쟁을 벌여온 박노순 열사는 일제에 붙잡힌 후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다.

그의 후손인 박림마씨와 우가이에고르 군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을 전전하며 살다가 4년 전 대한민국에 들어왔다.

박림마씨는 “먼 나라에서 살았지만 마음은 늘 한국에 있었다”며 “같은 국민, 같은 이웃으로 함께 살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고려인마을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앞에서 현화와 목념을 하며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다.

김강목 소장은 “나라 없는 설움 속에서도 자유와 광복의 불씨를 지켜낸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그 고귀한 뜻을 이어온 후손들이 이제는 자랑스러운 국민으로, 따뜻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재영 기자



천원의 행복한 피크닉

지난 28일 광주 서구 상무시민공원 피크닉존에서 이동형 물품공유 서비스 ‘천원들고 피크닉’ 행사가 열려 참가자들이 시원한 그늘 아래서 한적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번 행사는 돛자리, 에어베개, 피크닉 바구니 등 다양한 물품을 천원에 빌려서 사용하는 행사다.

/김예리 기자

## 금타 시민대책위 “광주공장 이전, 정부가 적극 나서야”

국회서 기자회견…의견서 대통령실 전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상화를 위해 조성된 시민대책위원회가 정부 차원의 공장 이전 지원과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9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 국회 소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공장 정상화를 위한 대주주인 중국 더블스타의 의지를 끌어내기

위해선 외교적 접근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이어 “사측은 내달 화재 복구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대주주가 공식 사과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로드맵에 과연 진정성이 담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더블스타는 고용안정과 공장 이전을 포함한 구체적인 정상화 대책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해 지역 내 연간 4천500억원 규모의 생산 손실과 1천551억원 상당의 부가가치 감소가 예상된다”며 “정부는 노동자 생계와 지역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공장 이전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대책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주성학 기자

## ‘가족여행’ 가장 일가족 살해 재판대에

檢 “공소 유지 만전”

가족여행을 가장해 떠난 여행지에서 처자식을 살해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검찰청은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를 받는 지모(49)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지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12분께 차를 몰다가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 인근 해상에 빠져 두 아들을 죽게 하고 부인을 숨지게 내버려 둔 혐의

를 받는다.

조사 결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지씨는 부인과 동반자살을 결심한 데 이어 남겨진 자녀들이 부모 없이 힘든 생활을 살 것이라는 생각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전 지씨도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순간적인 공포심에 열린 창문으로 탈출해 홀로 살아남았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적정한 국가형벌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 ‘금품 의장 선거’ 나주시의원 무더기 검찰행

제9대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는 나주시의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넘겨졌다.

29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뇌물 공여·수수 혐의를 받는 나주시의원 9명을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송치된 이들 중 A 의장은 다른 의원들에게 500만~1천만원 사이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A 의장이 건넨 뇌물은 지지를 호소하는 성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금품 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일부 의원들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며 1년 가까이 집중 수사를 벌여온 결과 혐의가 입

증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연루된 의원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재영 기자

시내버스에 들이받힌 70대女 사망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시내버스에 들이받혀 숨졌다.

29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56분께 북구 문흥동 한 교차로에서 A(60대)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70대·여)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안재영 기자

민간자격증 관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파크골프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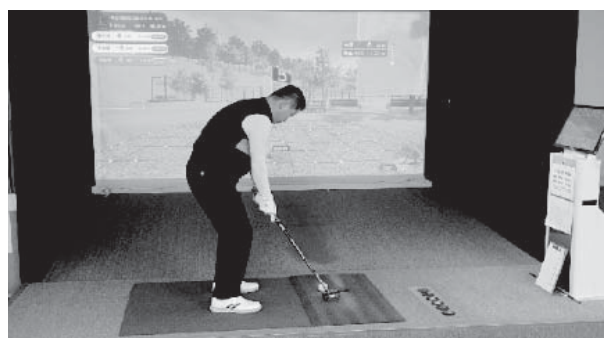
실내연습장 완비

## 지도자 자격증 취득

- 모집기간 : 수시모집(1:1교육)
- 교육접수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 ▶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매주 2회 이상)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접수방법
  - 농협 351-1286-9685-63(국제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 2급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 H.P. 010-9163-7897 Tel. 062-369-0070

## 파크골프교육 (초보,중급,고급)

- 실내실습장(파크골프 스크린장) 1:1 책임지도(매주 2회 이상)
- 광주교육대학교 시민대학 강좌 개설 - 매주 토요일 09:00-11:30
- 매월1회 이상 파크골프 동호인 동행 전국구장투어



## 파크골프 샵 (골프채, 각종용품, 용구)



안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방향